

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등 안내

2018. 1. 1.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시행되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.

2018. 1. 1.부터 대중교통, 자가용, 도보,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
1.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처리 알고보면 노동자 - 사업주 모두 “WIN-WIN”

○ 사업주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.

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,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,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○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치료비 등 요양급여, 휴업급여,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고,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·유족연금, 합병증 관리, 재요양,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2. 자동차사고는 산재처리 후 자동차보험 청구도 가능

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처리 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,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중이더라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.

3. 쉬운 산재신청 “산재보험 사전신고(상담)제도” 안내

근로복지공단 콜센터(1588-0075)에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산재신청을 지원하는 콜백(Call-Back)서비스, 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comwel.or.kr>) 또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(<http://total.kcomwel.or.kr>)를 이용하여 재해내용 등을 입력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상담을 통해 산재신청을 지원하는 인터넷 재해발생 신고제도 등 쉽고 빠른 산재보험 사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